

■광주 광산을 민주당 민형배

이낙연 상대 낙승...광주 유일 재선 성공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후보가 4·10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 유일의 재선 의원이 됐다.

그는 특히 국무총리와 전남지사, 5선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 등을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이기면서 전국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민 당선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선 과정에서 박시중 후보에게 패해 탈락했지만, 상대 후보의 관리당원 불법 조회 문제로 제기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재경선 끝에 어렵게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광주 현역 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면서 '친명(친 이재명)' 계로 꼽혔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탈락한 뒤 1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민 당선자는 "4월11일을 총선 시민 혁명의 아침으로 맞게 해주신 위대한 주권자 시민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린다"며 "민주당의 미래를 되살리는 데 매진하겠다. 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 착실하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에 출마한 민형배 후보가 10일 오후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게 이행하고, 광산구와 광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 불변의 민심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것이었다"며 "그에 비춰봤을 때 저의 당선은 저 개인이 특별히 잘해서 뽑아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 초선 의원일 때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우는 모습을 보시고 제법 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더 싸워야 하니 슬모가 있겠다 싶어 뽑

아주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 결과는 시민께서 국민의 의みに '사망 선고'를 내리고 민주당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더 강하게,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맨 앞에 서겠다. 광주시민께서 미답지 않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부터 제대로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오목이 정신으로 2전3기

■광주 북구갑 민주당 정준호

삼수 끝 당선...“청년 정치인 강단 보여 줄 것”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후보가 세 번의 도전 끝에 제22대 국회에서 입성하게 됐다.

정 당선자는 '3'과의 연이 아주 깊다. 학생 시절 삼수 끝에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를 졸업한 그는 삼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삼수 끝에 총선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정 당선자는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일화로도 유명하다.

정 당선자는 아버지가 광주 북구 각화동에서 통장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삼수' 동안 당원을 모아준 어머니의 도움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고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어머니는 10년 동안 동네 주민들은 물론 목욕탕이나 미용실 등을 거점으로 주민들에게 정 당선자를 알리는 데 애를 썼다고 한다.

그는 "주민들께서 '젊은 후보로 바뀌니 북구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골목 골목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착화하고 체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가 10일 오후 선거캠프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목에 걸고 가족·지지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는 2019년부터 1년간 선거구 내 말바우 상인회 자문 변호사를 맡으면서 상인들의 고충까지 챙긴 것으로 유명하다.

정 당선자는 2016년 20대 총선 기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부터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순회하는 등 이전부터 청년 정치인의 강단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당선자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룬 성공의 결실을 통해 청년 정치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정 당선자는 "호남 유일의 청년 경선 통과이자 동네에서 기대하는 젊은 정치인"이라며 "후배 정치인들이 젊은 나이에 도 큰 도전을 머뭇거리지 않도록 '정준호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 68.2%·전남 69.0%...32년 만에 최고 투표율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고 여야 '심판론'으로 투표 독려

4·10 총선 투표율이 3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지자체 중 전남(69.0%)과 광주(68.2%)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3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에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각 당이 내세운 '심판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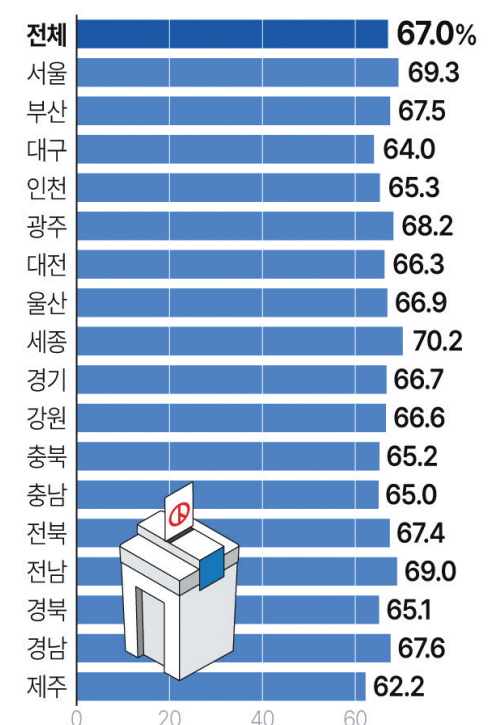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지지층에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고, 여야가 극한 대결 속에 내세운 '심판론'이 유권자들을 투표 소로 불러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 67.0%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총선(66.2%)보다 0.8%포인트(p) 높은 수치이고,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총선 투표 열기는 사전투표 참여율로 예고됐다. 이번 사전투표는 지난 총선보다 4.6%p 높은 31.3%로 역대 최고치를

4.10 총선 지역별 투표율



연일뉴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했다. 기존 사전투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보수 유권자들도 정치권의 사전투표

독려, 수검표 절차 도입 등으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당일 본투표를 자체는 지난 총선보다 낮았지만, 사전투표율 자체가 높다 보니 이를 상쇄하고도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며 "사전투표 24시간 CCTV 공개, 수검표 도입 등 신뢰성 강화 조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가 각각 선거 전면에 내세운 '심판론'이 유권자들의 '분노 투표'를 불러일으켜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범죄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이·조(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내세웠다.

비록 심판의 대상은 다르지만, 거대 양당 모두 지지층과 중도층에게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나서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 동남갑 민주당 정진욱

국회 첫 입성...“민생회복과 정권탈환에 앞장”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당선자는 세 차례 도전 끝에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경기도 안양 동안구를 선거구에, 20대 총선에서는 현 지역구인 광주 남구에서 국회의원 도전에 나섰다지만, 모두 경선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부친으로부터 배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좌우명을 가슴에 새기며 끝없는 도전 끝에 결국은 '뺏지'를 다는 영광을 안았다.

그의 특이한 이력도 주목된다. 서울대 졸업 후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 기자생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는 교보문고 상무와 기업인으로서 벤처기업을 성공시키는 등 실물경제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차례 국회의원 도전은 실패했지만, 정치적 이력도 상당하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선에서부터 대선 본선,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 선거 등 4차례 이 대표의 대변인을 맡는 이색경력을 갖고 있다. 이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에 출마한 정진욱 후보가 10일 오후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런 인연 탓인지 '원외 친명' 인사로 꼽히고 있다.

정 당선인은 이러한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총선 경선 과정에서도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차기 남구정장 후보들이 대거 물러나면서 조직력까지 탄탄하게 다져오면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정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그리고 남구와 광주 지역발전

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의 소중한 정성이 모인 결과였다"면서 "무엇보다 고물가 민생파탄, 경제 추락을 가속화한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고견을 반영해 지역 안전 해결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합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